

15세 아들 외출 못하게 변발 시킨 엄마



▲ 이발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mothership.sg

한때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한 엄마가 아들의 외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사연이 화제다.

코로나 사태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고 크게 우려했던 이 엄마는 최근 아들을 미용실에 데려갔고, 미용사에게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게끔 '변발'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외모에 한창 관심을 가질 나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변발을 해 앞머리와 옆머리만 남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본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엄마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머리를 자른 미용사 황 씨는 "머리를 자르는 동안 소년이 마치 날 죽일 듯이 노려보는 느낌이였다."면서 "소년은 머리를 다 자른 후 '나가고 싶지 않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같았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엄마가 너무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듯", "오히려 아들이 더 벗어나갈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얼마나 걱정됐으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엄마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듯", "때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낫다.", "모자를 쓰고 나가면 되지 않나?"는 등의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도 있었다.

반려견 구하려고 맨손으로 곰 밀쳐낸 소녀

캘리포니아주의 17살 소녀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맨손으로 곰을 내쫓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남부 로스앤젤레스 브래드버리에 사는 헤일리 모리니코라(17)는 지난달 27일 반려견들이 격렬하게 짖는 소리에 집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담장에는 커다란 야생 흑곰 한 마리가 담을 넘어올 듯 매달려 반려견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반려견들은 그런 곰에 대항에 격렬하게 짖어댔다.

그 모습을 목격한 헤일리는 곰을 향해 달려가 담장 밖으로 밀어냈다. 함께 온 새끼 곰 2마리는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에 놀라 자취를 감춘 후였다. 흑곰은 담 바깥이 옷집으로 떨어진 후 이내 모습을 감췄다. 헤일리는 곰이 사라진 후 반려견들을 데리고 몸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헤일리는 손가락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헤일리가 곰을 내쫓는 장면은 CCTV에 담겼고 그녀의 어머니 시트렐리 모리니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헤일리의 어머니는 "헤일리가 초인적인 힘으로 반려견들을 구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



▲ 담장 밖으로 곰을 밀쳐내는 헤일리. 사진=유튜브(ABC7)캡처

였다."고 말했다.

헤일리는 "처음엔 반려견들이 다른 개나 다람쥐를 보고 짖는 줄 알고 나가봤다."며 "반려견들을 지키기 위해 곰과 싸웠다."고 말했다.

앤젤레스 국유림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인 브래드버리는 산맥이 인접해 야생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신부 2명에 신랑은 19명 ... 결혼 사기

지난 3월, 35세의 한 중국 남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인의 결혼식 생중계 장면을 보다가, 결혼식 주인공인 신부의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 자료사진(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hutterstock

조사에 착수한 내몽고 우라터첸치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고자의 아내는 결혼이 급한 농촌 출신 남성들에게 접근해 마음을 얻은 뒤 결혼을 하고, 이들로부터 약혼선물을 받는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가 시청했던 결혼식의 신랑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은 또 다른 여성 1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저질러 온 여성 2명은 총 19명의 남성과 사기

결혼을 올렸으며, 피해 남성들에게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피하는 동시에 총 200만 위안(약 3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생활을 한 2개월 동안 아내가 집에 있던 날은 고작 10일 정도였다."면서 "아내는 간수성에 사는 부모님에게 다녀온 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은 사기 조직이 여러 마을을 돌면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없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초현상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아선호사상이 이어져 왔고, 40년간 시행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짝을 찾지 못한 남성이 3,000만 명을 넘어섰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